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오 덕 교

## 작은 용기 큰 희망 밝은 미래...

어느날 갑자기 내 앞으로 날아온 편지 한통. 골수은행협회에서 온 편지였다. 순간 까마득하게 잊혀져 있던 6년전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아마도 신입사원 입문교육 때였을 것 같다. 단체로 헌혈을 하면서 골수기증 캠페인이 한창이었던 것 같다. 골수기증에 관한 안내문과 간호원 누나의 짧은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헌혈을 하였던 대부분의 동기들이 너도나도 할거 없이 골수기증에 동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간호원 누나가 예뻐서였나?

사실 나는 나와 기증조건이 맞는 환자가 나올 확률이 사막에서 바늘 찾을 만큼 어려우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인지 흐른 세월도 세월이지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편지를 받는 순간 그런 확률이 나와 맞았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편지를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다. 환자는 한살된 남자아이. 기증여부는 온전히 내 마음에 달려있었다. 분명 내가 선택할 문제였다. 일단 다른 생각의 여지없이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모른채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려있는지, 고통조차 못 느낄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또 그 아이의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모습도 눈에 선했다. 물론 내가 자발적으로 내 발로 가서 등록한 것도 아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간다면 평생 죄의식에 묻혀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아니 얼마든지 나 자신을 합리화해서 그렇게 살수도 있었겠지...

다음날 회사에 그 편지를 가지고 과장님께 보여드렸더니 좋은 일 한 다면서 복 받을 거라면서 바로 허락을 해주셨다. 기증을 위해선 며칠간의 입원기간과 회복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거 같아서 모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먼저 아버지께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바로 편지를 보여드리며 골수 기증을 하겠다고 말했다니 돌아온 것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나 하느냐”면서 호된 호통이었고 어머니 역시 놀라하셨고 가족 모두가 걱정부터 하기 시



작했다. 당연히 전문지식이 없는 부모님은 골수기증을 무슨 장기이식처럼 어려운 수술로 인식하고 계셨고 그래서 더욱더 반대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간단한 시술정도만 하면 되고 나는 바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아버지께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지를 다시 읽어보시곤 오해가 풀리셨는지 다행스럽게도 허락을 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시술일정을 잡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크게 노하여 호통을 치셨을 땐 야속하게 느껴지

기까지 했지만 생각해보니 어느 부모가 자신이 직접 낳아 기른 자식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 아마도 한살난 갓난아이란 것이 더욱더 애뜻하게 느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시술을 받기 전까지 주위에서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고 격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였고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

었다. 사실은 안 그런데... 심지어 뭐 TV에서 봤는데 그거 무지 아프다. 기증자가 무지 고통스러워하더라는 말을 들을 땐 솔직히 겁도 났었고 그럴 땐 다른 기증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검사 받기 위해 시간 내는 것이 회사에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시술 받기 전까지의 기다림, 그 과정이 더 힘들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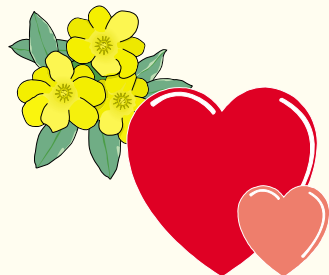
‘ 짹 ’ ‘ 짹 ’ ‘ 일어나세요... 정신이 드세요?’

잠에서 깬을 땐 정말로 몇 분 동안의 낮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었고 우려했던 통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지 않았다. 단지 지혈을 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허리에 대고 계속 누워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을 뿐... 기증 후 나의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화되어서 한결 새로와 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까닭은 뭘까? 3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금은 몸에 흔적은 조금 남아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전보다 더 건강해진 느낌으로 살고있다.

아무쪼록 그 아이가 100% 완치되어

서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고 또한 기증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코디네이터 양성희씨를 비롯해서 직장상사 및 동료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다.

아직까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골수기증 신청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유교사상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이기도 하다는데 자신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많은 환자들에게 여러분의 숭고하고 큰 용기로 미래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의 격려와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이강진

## 기증과 수혜사이

전방에서 흑한기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전화를 한 통 했더니, “골수.....뭐 그런데서 소포 왔더라. 근데 그거 뭐냐?” 처음에는 내가 그런 병에 걸린 줄 아셨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부대 생활에 잠시 과몰입혀 연락을 못하다가 한 3주 뒤쯤에 ‘아참~!’ 떠올리고는 전화를 했다. ‘장형인 코디네이터’를 찾으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다.

골수기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성덕 바우만’ 그런 것만 떠올랐다. 그리고

많이 아프다는 말 등등 그런 편협된 지식 밖에는 골수 기증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원래 병원 신세를 많이 졌던 나는 아픈 것에 둔감해 맘속에 ‘OK’를 각인지워 냈었다. 그리고 수혜자가 백혈병에 걸린 내 또래의 여자라고 하셨다. ‘혹시 나중에 만나자고 하면 어떡하지?’...후후.....누가 그러던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쨌든 아무것도 모른채, 단지 하겠단 마음만 먹고는 전화를 걸었다. ‘코디네이터....? 이진 뭐 하는 거지? 장형인? 남자네.....쩍^^’ 이런 생각 속





에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 어떤 여자 분이 받고는 자기가 '장형인'이라고 그러다. 그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골수기증'이 바뀌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골수기증을 하는 과정은 추가로 HLA형이 일치(이미 95%는 일치한 상태임)해야 하기에 약간의 채혈과 건강검진,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골수를 뽑고 나면 약간의 피가 모자란 상태가 되므로 혈액을 수혈 받아야 하는데 그 수혈 받을 혈액을 내가 미리 뽑아 놓게 된다. (나는 골수가 '피를 만드는 피'란 것도 모른채 괜히 노란색, 흰색등을 연상했었다.) 이렇게 두차례의 자가수혈용 혈액을 채취하고 나면 약10일 후에 이식수술을 하게 되는데 2박3일 후면, 다시 말해 병원에 있는 지 3일째 되는 날에 퇴원을 한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채혈 등을 할 때는 양성희 코디님이 얘기 데리고 병원가는 엄마처럼 나를 보살피 주셨다. 끼니도 해결해 주시고 못 주신 교통비는 나중에 통장으로까지 부쳐 주셨다.

퇴원하는 날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약간 '어그적'거리며 걸어 나왔고

그 다음날에는 대견해하시는 어머니를 백화점으로 유인(?)해 두어시간 쇼핑을 하기도 했다. 1주일 채 되기도 전에 친구들과 농구를 서너 게임 뛰었다. 1주일 뒤에 부대에 돌아가서는 작업(?)등을 피하기 위해 괜히 아픈척도 했지만 내 몸은 '말짱'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능이 못된다'는 생각에 당장 하기로 결정했지만 기쁨은 그보다 훨씬 컸다. 일단은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항상 잘 아프고 해서 걱정하셨는데 '군대 가더니 남에게 자신의 일부를 쥐도 괜찮을 만큼 건강해졌다'는 코디님들의 말에 너무나 기뻐하셨다. 7년간 주머니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담배도 장형인 코디님과 첫 통화 직후 끊었다. 지금도 6개월 째 금연에 성공하고 있다. 덕분에 마른 편이었던 나는 5-6Kg을 늘려 지금은 보기 좋게 되었다.

나는 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한지 9개월 정도만에 '연락'을 받았다. 수혜자 분도 병에 걸린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한다. 수혜자분 부모님들이 상당히 기뻐하셨을 것 같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들도 그분들 못지않



게 기뻐하셨다. 건강해진 나, 금연 등 등 오히려 그분들께 감사 아닌 감사를 하신다.

'골수기증'은 결코 '기증'이란 말처럼 일방적인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내가 유형의 것을 드렸다면 수혜자분은 그보다 훨씬 커다란 무형의 것을 나에게 주셨기에 오히려 감사드린다.

그리고 꼭 회복하셔서 다음에는 '기증자'란 말을 들으며 '수혜자'기분

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나의 편견처럼 그렇게 힘든 지난날이 아니었다. 사단법인 한국골수은행 협회(정식명칭)의 장형인 코디님, 양성희 코디님, 그리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또 한 분의 코디님의 진심 어린 보살핌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협회 여러 관계자님들의 노력으로 몇년 뒤에는 헌혈처럼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차 건 욱

## 체 험 수 기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았던 2월 초 어느날 저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전화번호와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더군요. 내용을 확인하고서 골수협회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자세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전 저희 모친께서는 심장판막증이란 질병을 앓고 계시다 어느 고귀한 분의 희생에 힘입어 제2의 삶을 사시게 되셨죠. 그 고마운 분의 뜻을 기리어 이식 수술 후 어머니께서는 사후 장기 기증 의사를 내보이셨고 당신의 육신이 의학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신다며 의학연구용으로 기증하시겠다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편안히 여생을 마치신 후 그 주검을 고이 모셔야 할 터인데 뜻밖의 어머니님 말씀은 저희가족 모두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냉정히 돌이켜 보며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도움이 되어 주셨던 일들이 새삼 생각이 나더군요. 남은 여생을 당신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시겠다는 어머니의 뜻을 더 이상 막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간혹 헌혈을 하곤 했던 헌혈의 집을 찾게 되었죠. 무심코 매번 작성하던 헌혈 신청서 뒷면 하단에 있는 골수기증신청서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어떤 고귀한 뜻이 있어서도 봉사심이 투철해서도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맘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날 골수협회에서 온 연락은 묘한 기분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첫번째 혈액검사를 위해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까지 막바지 겨울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오시더군요. 이렇게 시작을 하여 한달 뒤 2차 정밀검사를 받고 4월 0일 입원을 하여 몇 가지 추가 검사를 한 후 완전한 수술 준비를 마치고 내일 있을 수술을 기다렸



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작으나마 제 몸의 일부를 남에게 줄 수 있도록 건 강한 몸을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 드 렸습니다.

다음날 11시 무렵 수술실에 들어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병실로 올라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수술 사실을 감추었지만 때마침 친한 선 배의 안부전화를 받고 부탁한 간병 요청에 선배가 와서 맞아 주었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서서히 몸 이 회복해 가면서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껏 제 스스로 결정한 일들 중 가장 뿌듯함을 느끼 게 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음날 협회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병원 관계자 분들의 많은 격려와 배 려를 받으며 퇴원을 하여 다시 직장 에 복귀하여 두 달이 가까워오는 지 금까지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 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제 골수를 수 혜 받으신 분에 대한 염려를 이제서 야 하게 됩니다만 아무쪼록 아무런 탈없이 쾌유하시길 바라며 지금도 병상에서 힘든 병마와의 싸움을 하 고 계실 환자 분들과 가족 분들에게 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물심양면 애 쓰시는 골수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코디네이터 선생 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이후 가족들에게 조용히 이 사 실을 얘기했을 때 다들 가슴속으로 따뜻한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습니 다. 제 뜻을 이해해 준 가족과 여자 친구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 며 이 글을 읽으실 여러분들께 골수 기증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접으시길 바라며 무엇인가를 나눈다 는 것이 얼마나 내면에 잔잔한 감동 과 풍성한 만족감을 주는 것인가를 말씀드리며 이 글을 가늠하고자 합 니다. 감사합니다.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최재우

## 그 아이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최재우 학생 전화 왔습니다.”

쉬는 시간 중이었다. 난데없이 학교로 걸려온 누군가의 전화에 의아해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 “골수은행협회인데요...” “예전에 골수기증 신청하셨죠?” “예?” “예전에 골수기증 신청하셨죠?” 상대방의 재차의 물음에 “아...” 뜻밖이었다. 나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래, 5년 전인가에 성덕 바우만의 프로를 보고 난 뒤에 헌혈할 때, 골수기증 신청을 했었지...’ 벌써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내 기억 한편에서 지워버렸을 듯한 그일. “골수은행협회 양성희입니다.” 전화를 건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한의대생인 나는 다시 예전에 배웠던 백혈병에 대해 찾아

보기도 하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다. “하겠습니다.”

29년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원, 수술, 그 뒤에 올지도 모르는 고통... 솔직히 두려웠지만, 설마 죽어야 하겠는가 하는 맘으로 담담히 임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물론 부모님은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다. 함부로 그런 결정을 하느냐, 너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느냐는 등의 반대가 심했지만 차근차근 이해시켰다. 부모님을 설득시키는데 무진장 애를 먹었다. 어쨌든 2번의 자가수혈을 위한 채혈과 검사 끝에 2월 0일 드디어 입원을 하였다. 입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나를 담당하시는 양성희 코디네이터님께서 내가 입원 시에 필요한 물품을 사들고 들어오셨다.

“수술하고 나서 영치부위가 많이 빠르실 거예요.” 수술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후에 예상되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2월 0일 아침이 밝았다. 입원 전날 부산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님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뒤로 한채 아침 일찍 수술방에 들어갔다. 처음 본 수술실





은 생각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요추를 통한 하반신 마취후 재워 주겠다는 의사의 말...

black out.

깨었을 때 수술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약간 추웠다. 회복실에서의 2시간, 그 뒤 입원실로 옮겨졌다. 생각만큼 고통은 없었다. 다만 샌드백을 수술 부위에 대고 있어서 허리가 무척 빠근할 뿐이었다. 800cc의 골수가 비행기를 통해 공수되었다고 한다.

코디네이터 선생님 말씀이 수혜자의 컨디션이 좋아서 이식수술이 잘 될거라 말씀하셨다.

9살짜리 여자아이...

누군지,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였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누구든 상관없지만 그 아이가 쾌유하면 되니까. 엉치와 허리는 아프지만 기분은 좋았다. 보람된 하루였다.

수술 후 3주가 흘렀다.

부산에서 설도 지냈다. 수술 부위가 며칠간 많이 빠근할 거라고 했는데 다행이도 나는 이틀 정도 지나니까 말끔히 사라졌다. 회복이 빨랐다. 수술 전에 나름대로 한약을 복용하였던 것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해진 기분이다. 내가 수술한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나보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였다.

수술 후 어머님께서 걱정을 하면서도 좋은 일 하였다는 격려의 말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수술 전부터 수고 해주신 양성희 코디네이터 님께도 감사 드린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증자 이야기

기증자 / 허성윤 (행정자치부 근무)

##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나눕니다.

2002년 3월 0일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귀중한 날이다. 혈연도 지연도 그 무엇도 연결고리가 없는 한 사람을 위해, 내 몸의 일부인 골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실 골수기증을 하기 2~3달 전부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과 내가 목적을 두고있는 일 가운데서 하루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은 교통사고였다. 온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었고 가족들은 전치 3~8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난 거의 다치지 않았다.(작은 아이는 머리뼈가 골절되고, 큰 딸애는 이마에 19바늘이나 꿰매는 큰 사고였음) 또 하나는 중앙부서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과 몸이 매우 분주한 상태였다.

이 와중에 골수은행협회로부터 받은 한 통의 전화는 근래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바쁜 일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우선 아내와 의논을 했다. 많이 염

려하고 걱정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결론은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누구보다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긁힌 상처만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 나를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 직장 특성상 이 일을 직장상사에게 보고하니 “업무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골수기증 후 미안한 마음으로 출근하니 오히려 건강을 걱정해 주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에 임할 나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지금은 골수기증의 흥분된 경험(?) 가운데에서 나도 무언가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두고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주변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골수기증 등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못 흐뭇하기까지 하다.

오늘로써 기증 70일이 지났다.

채취의 흔적은 아직 조금 남아 있지만 오히려 몸은 더 건강해 진 것 같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것저것 더



건강에 신경을 써주니까 말이다. 그 전엔 아침잠이 많아 눈도 뜨지 못하던 사람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는 걸 보면, 대접 한번 제대로 받는군 하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내 골수를 기증 받은 청년의 건강은 어떨까? 100일이 지나야 골수 생착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했는데...옛말에 “무소식이 희소

식”라 했듯 아마도 건강하게 되어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갈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 것은 또한 골수기증과 더불어 내가 그 청년에게 준 성경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나눕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